

# 돌아온 광주FC, K리그 개막전 승리 축포

수원삼성과의 원정서 1-0 승  
아사니 후반 43분 선제결승골  
골키퍼 김경민 선방 승리 견인  
이정호 감독의 용병술 적중



광주FC 아사니(오른쪽)가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원정 개막전에서 후반 43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린 뒤 동료 선수들과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개막 첫 경기부터 수원 삼성팬들에게 우리 축구가 어떤지 알려주겠습니다.”

2023 K리그1 개막전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정호 광주FC 감독이 밝힌 자신감 넘친 출사표였다. 시험 보기 직전 준비된 자의 자신감은 지난 25일 경기 결과로 확인됐다.

광주FC가 K리그1 복귀전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승격팀’의 매서운 맛을 보여줬다.

광주FC는 지난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수원 삼성과의 원정 개막전에서 1-0으로 이겼다.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상위스플릿 진입 목표를 향해 순조로운 출발을 한 셈이다.

광주는 이날 경기에서 4-4-2 포메이션으로 수원 삼성을 상대했다. 산드로와 토마스를 투톱으로 두고 엄지성-이순민-정호연-이희균을 중원에, 이민기-안영규-티모-두현석을 포백에, 김경민을 골문에 각각 배치했다.

광주 선수들은 원정에서 치러지는 개막 첫 경기인데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광주만의 축구를 유감없이 펼쳤다. 출전 선수 전원이 많은 활동량으로 공수에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 특히 공격 전개시엔 전원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산드로와 토마스는 공격을 몰아붙이면 서 전방에서 적극적인 수비로 상대 역습을 차단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엄지성과 이희균, 이민기, 두현석은 공격과 수비 진영을 부지런히 오가며 공간을 지배했다. 이순민과 정호연은 수비수의 공격 가담으로 생긴 빈 뒷쪽 공간을 메워주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 보였다.

특히 골키퍼 김경민은 연이은 슈퍼세이브로 골문을 든든히 지키며 존재감을 알렸다. 김경민은 전반 10분 고승범의 발리 슈팅과 전반 33분 김보경의 논스톱 슈팅, 후반 28분 아코스티의 감아차기 슈팅까지 3차례의 위협적인 슈팅을 선방했다. 김경민은 이날 수원의 8차례 유효슈팅을 모두 원천 봉쇄하며 팀 승리의 일등공신

이 됐다. 이정호 감독도 김경민의 활약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 감독은 경기 후 “김경민이 아니었다면 원정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뒤에서 잘 버텼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왔다. 내 마음 속의 최우수선수다”고 극찬했다.

김경민은 “첫 경기만큼 그냥 동계훈련 시작때처럼 기본에 충실하려 했고 그에 대한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결과로 이어진 거 같다. 골을 안먹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수있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무조건 집중하려고 했다. 승리해서 정말 기쁘다”고 웃었다.

이정호 감독의 용병술과 아사니의 골 결정력도 이날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이 감독은 후반들어 수세에 몰리자 5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하며 수원을 계속 압박하는 공격 전술을 시도했다. 후반 20분 아사니와 허을, 아론을, 25분 하승운을 투입하며 공격라인에 변화를 줬다. 후반 33분엔 멀티플레이어 박한빈 투입으로 승부를 걸었다.

이 감독의 승부수는 적중했다. 교체 투입된 아사니가 후반 43분 팀의 선제 결승골을 넣으며 해결사 역할을 했다. 아사니는 정호연의 패스를 받아 지체없이 강한 원발 슈팅으로 수원 골망을 흔들었다. 아사니는 이날 한 차례의 슈팅 찬스를 골로 연결시키며 K리그 데뷔전서 데뷔골을 터뜨렸다.

광주가 남은 시간 수원의 파상공세를

막아내며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자 수원월드컵경기장 원정 관중석에선 휴대폰 세리머니와 함께 ‘남행열차’가 울려 퍼졌다.

광주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원정경기까지 따라와 응원한 100여명의 광주 팬들과 만세삼창을 외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정호 감독은 “승리해서 좋긴 하지만 경기력, 과정에 대해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운이 좋아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운도 우리 선수들이 노력한 댓가다”며 “아사니가 골을 넣었을 때 ‘우리 선수들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광주는 다음달 5일 FC서울을 광주축구전용구장으로 불러들여 시즌 두 번째 경기를 갖는다.

이 감독은 “두 달 동안 준비한 전술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긴장을 한 나머지 제 플레이를 펼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오늘 승리가 선수들에게 큰 자신감으로 다가올 것 같다. 계속해서 부딪혀보겠다”며 서울전 각오를 드러냈다.

광주의 개막전 승리를 직관한 광주 팬들의 올시즌 기대감도 커졌다.

광주FC 서포터즈 정현욱씨는 “광주FC가 동계훈련을 통해 전체적으로 많이 준비한 느낌이다. 공수에서 세밀한 패스 플레이가 이뤄지지 않는 등 아직은 조직력이 100%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다음 경기에선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정호 감독이 팀을 잘 만든 것 같다. 미흡한 조직력을 더 가다듬으면 공격적으로 더 날카로워질 것 같다. 올시즌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 ‘기상 악재·부상 속출’ KIA 시즌 준비 차질

미국 기상악화로 캠프 일정 조정  
이창진·박찬호 부상 日캠프 제외

미국 기상 악재와 부상 선수 속출로 KIA 타이거즈의 시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KIA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키노스포츠 콤플렉스 스프링캠프에서 예정된 실전을 완벽히 소화하지 못했다.

KIA는 당초 지난 1일부터 투손에서 기술 훈련 위주의 캠프 일정을 소화한 뒤 20일 WBC대표팀, 22-23일 NC다이노스와 연습경기를 치르고 25일 한국으로 귀국한 뒤 곧바로 일본 오키나와 2차 캠프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상 악재로 발목이 잡혔다. 온화한 기후의 애리조나주 투손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서 NC와의 연습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또 투손에서 1차 캠프를 마치고 오키나와 2차 캠프로 향하는 일정도 순탄치 않았다. KIA 선수단은 24일 오후 11시(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러 했으나 LA의 기상 악재로 탑승하지 못했다.

KIA는 선수단이 현지시간 25일 오후 2시 OZ201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출발

했으며, 26일 한국시간 오후 7시30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KIA 선수단의 오키나와 출국은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다. 27일 코칭스태프와 투수조(일부 야수 포함)가 이동하며, 나머지 선수단은 28일 오전에 오키나와로 갈 예정이다. 예기치 않게 일정이 밀리게 되면서 KIA의 일본 오키나와 2차 캠프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오키나와 도착이 늦어짐에 따라 28일 예정됐던 한화와 연습경기 등은 변동 가능성이 커졌다.

부상 악재도 터졌다. 내야수 박찬호와 외야수 이창진이 부상으로 인해 오키나와 캠프에서 제외됐다.

KIA는 26일 이창진과 박찬호가 27일 병원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진은 지난 20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대표팀과의 연습 경기 도중 다이빙 캐치를 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을 다쳤다.

박찬호는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측 손목에 불편함을 느껴 검진 차원에서 제외됐다. 대신 외야수 고종욱과 이우성, 내야수 최정용, 투수 장현식이 오키나와 캠프에 새롭게 합류한다. **최동한 기자**

## 새 무등야구장 좌우 펜스 길이 축소... 야구인들 ‘부글부글’

리모델링공사 상반기 완공 예정  
기존 100m→95m로 줄어들어  
전국대회 개최 불가능 지적도

리모델링 중인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좌우 홈런펜스 길이가 축소돼 광주 야구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좌우 홈런 펜스 길이가 짧아지면 공인대회나 국제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광주시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따르면 국비와 시비 489억원을 들여 야구장 일부 관람석을 철거하고 새 아마추어 야구장을 만드는 무등경기장 야구장 리모델링 공사가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지하에는 2층 규모(1037면) 주차장이 조성되고 내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공간과 경기장 주변에는 체육·편의시설과 산책로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야구장의 홈플레이트로부터 좌우 홈런펜스 길이까지 거리가 기존 100m에서 95m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병석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6일 지역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사가 진행 중인 무등야구장 좌우 홈런펜스 길이가 기존 100m에서 95m로 줄어 전국 구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모 대회나 국제대회 개최가 어려워졌다”며 “광주시가 협회와 협의없이 펜스 길이를 축소한 데 대해 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공식야구규칙에는 경기장 규격과 관련해 ‘양쪽 파울라인은 97.534m(320피트), 중앙은 121.918m(400피트) 이상이 되어야 이상적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무이사는 “6만여명의 야구소프트볼 동호인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4년 동안 전남과 전북 등 타지역을 전전하며 참고 기다렸는데 최소한의 규격마저 지키지 못한 반쪽짜리 경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 야구장은 200석의 관람석을 갖춘 공원이야구장으로 좌우펜스 95m, 중앙펜스 110m로 계획 설계됐으며 이는 협회 측과 두 차례 협의해 확정된 것이다”며 “KBO와 대한야구협회에 문의 결과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야구장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따로 마련된 것이 없고, 공원이야구장인 무등야구장에서도 충분히 중·고교야구 전국대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최동한 기자**